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세비앙의 수납일체형 샤워기 '가로본능 UP'

"선반형 샤워기, 한국식 좁은 욕실에 제격"

샤워기 전문 업체인 세비앙의 류인식 대표는 2010년 아파트 100곳을 돌며 사진을 찍었다. 류 대표는 "욕실 정리정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욕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였다"고 했다. 이 과정을 거쳐 나온 제품이 선반형으로 만든 수납일체형 샤워기다. 욕실용품을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것. 2012년 '가로본능 UD'를 거쳐 지난해 '가로본능 UP'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 제품은 작년 12월 으뜸중소기업 제품으로 선정됐다.

◆관찰의 힘 '가로본능'

'치약 등 세면도구와 샴푸 린스 등 자주 쓰는 욕실용품 종류가 10여 가지 이상이다. 보통 세면대나 욕실에 별도로 설치한 코너 선반에 놓고 쓰기 때문에 샤워하다 보면 불필요한 동선이 발생한다. 선반에 물이 고여 있으면 위생에도 나쁘고, 청소 후에도 정리정돈이 된 것 같지 않다.'

류 대표가 파악한 한국 욕실의 문제점이었다. 그는 "바쁘게 사는 한국인들의 일상과, 아파트 안에 있어 채광과 통풍이 잘 안되는 한국 욕실구조를 감안해 편리성과 위생기능을 추가한 샤워시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던 어느 날 그는 서울 북촌에 있는 한 카페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류 대표는 "한 평(3.3㎡)도 안 되는 작은 화장실 안에 선반이 하나 있었는데 각종 용품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품에 적용했다"고 했다. 선반형 수납공간을 샤워기에 더한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는 "관찰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아이디어를 제품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샤워기 파이프에 얼굴을 비춰보면서 수염을 깎는다는 직원의 말은 샤워기에 면도경을 붙이는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류 대표는 "늘 고민하고 관찰하면 일상에서 답이 보이더라"고 했다.

'가로본능'은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의 장점을 강조한 이름이다.

류인식 세비앙 대표가 수납일체형 샤워기 '가로본능 UP'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추가영 기자

선반으로 수납기능 갖춰
수건걸이·깔끔틈새 기능도
GD·iF디자인상 수상

사람의 시선은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된 것을 볼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에 착안했다. '가로본능 UP'에는 △물 빠짐 장치 △비누거품을 내는 수건 등을 걸 수 있는 건조용 걸이 △샤워호스를 정리할 수 있는 '깔끔틈새' 등도 추가했다.

◆디자인이 핵심경쟁력

류 대표는 1987년 대림통상에 입사하면서 욕실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1993년 세비앙을 설립한 뒤 5년 동안 칫솔 살균기, 항균 양변기 시트를 만들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후 류 대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때마침 욕조 대신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던 때였다. 세비앙은 이후 샤워기에 집중했다. 현재 세비앙은 국내 고급 욕실 샤워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비앙의 경쟁력은 디자인이다.에 대해 류 대표는 "디자인이다"고 말했다. 세비앙은 1996년 욕실업계 처음으로 '굿 디자인(GD) 마크'를 획득했다.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경영의 중심에 둔 것은 2004년부터다. 류 대표는 정부 지원으로 세계적 의류업체 베네통의 디자인센터(현 커뮤니케이션센터)인 '파브리카'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했다. 당시 50여명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영화 같은 환경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경기 안산 시화·인천 남동 공단의 열악한 환경에서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곧 디자인기술연구소를 설립했고, 현재 30여명의 직원 중 5명이 디자인 전담인력이다.

이 회사는 2005년 미국 '아덱스 디자인상'(2008년)과 'iF디자인 어워드'(2009년) 등을 수상했다. 2012년 '가로본능 UD'로 'iF디자인 어워드' 2관왕에 올랐다.

류 대표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만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욕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움을 느낄 만한 샤워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경기)=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세비앙의 수납일체형 샤워기 '가로본능 UP' (031)765-3110 △라이프온랩의 밴드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랙시아' 070-4603-7474 △메디레포의 '메디레포아이싱' 070-4193-8525 △유니디자인의 보스(Beaus) 타일 (032)612-9519

가구 온라인몰 '쑥쑥' 크네

한샘 작년 1300억 판매
전략상품, 가격정책 적중

국내 가구업체들의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몰 전용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이들 제품의 가격을 낮춰 판매를 늘리는 전략이 적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의 온라인 판매는 2012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300억원으로 62% 가량 증가했다. 온라인 판매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또 한샘이 운영하는 '한샘몰' 판매 비중도 늘고 있다. 외부 판매와 한샘몰 판매 비중은 2012년 50%(400억원) 대 50%(400억원)에서 지난해 27%(350억원) 대 73%(950억원)로 바뀌었다. 한샘몰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온라인 전략이 먹히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한샘은 지난해부터 외부 오픈마켓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샘의 온라인 전략상품은 100만개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샘 책장'(사진)이다. 이케아의 베스트셀러 '빌리 책장'을 벤치마킹한 제품이다. 한샘은 이 제품을 출시한 첫해인 2009년 16만7000원을 받았지만, 판매량이 증가하자 2011년 9만9000원, 2013년 8만9000원, 지난해엔 8만5000원으로 가격을 내렸다. 이 책장은 작년에만 30만개가 넘게 팔렸다.

현대리바트 온라인 매출도 2009년 75억원에서 2013년 450억원, 지난해 55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8월 모바일 구입 기능을 더한 통합 웹사이트로 개편한 후 고객 수와 매출이 크게 늘었다.

하반기만 놓고 보면 2013년보다 신규 고객 수는 46%, 매출은 69% 늘었다. 현대리바트는 온라인 전용 가구와 생활소품 중 지난 2주 동안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제품을 10~60%까지 할인 판매하는 '핫 50'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판매 수익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까사미아도 인테리어 소품 판매 덕에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2013년 53%, 지난해 64% 증가했다. 2013년에 16%를 차지했던 생활소품류 매출은 지난해 67%로 급증했다. 에넥스도 자사몰 에넥스홈을 정비하고 온라인 전용 브랜드 '에니'를 전면에 내세워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민지혜기자 spop@hankyung.com

중기청, 올해 창업지원에 1조5400억원 투입

정부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약 1조54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교육 및 사업화 등 21개 창업지원사업에 전년(1조5222억원)보다 7.7% 늘어난 1조539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2015년도 창업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창업자금 융자에 1조3000억원, 창업선도대학 육성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등 창업사업화 사업에 1613억원, 지식서비스 창업에 231억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227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또 대학(원) 재학·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인턴제와 성실실패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도전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각각 50억원과 3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산은 지난해 508억원에서 올해 65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는 창업선도대학 예산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각 지역의 우수한 창업자들이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국 30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비즈쿨 사업에는 60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창업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등에 쓰인다.

추가영기자 gychu@hankyung.com

中企확인서 온라인 발급

중소기업청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범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1966년 중소기업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 회원 가입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창작물 박람회 만화, 게임, 음반, 수공예품 등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박람회인 '케이크스퀘어(Cake²)'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연합뉴스